

# 의사결정스타일과 위험성향의 측정, 분포, 그리고 그 관계 : 한국인 표본을 대상으로\*

배은성 · 김범석 · 민재형<sup>†</sup>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cision Making Styles and Risk Attitudes : The Case of Korean Adults

Eunsung Bae · Bumseok Kim · Jae H. Min

Sogang Business School, Sogang University

### ■ Abstract ■

We measure individuals' decision making styles and risk attitudes from a sample of Korean adults using the general decision making styles (GDMS) and the multiple price list design (MPLD), respectively. With the measurement results, we identify the distributions of the decision making styles and risk attitudes, and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Specifically, we conduct an exploratory experiment to find out some meaningfu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adults in terms of their decision making styles and risk attitudes.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show that the distribution of the five decision making styles turns out to be different by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In addition, risk attitudes of the Korean people are quite distinct from those shown in the previous studies which were mostly conducted in the United States with the samples of college students. It is also shown that each of the five decision making styles has a different distribution of risk attitudes, which is statistically verified.

The results of this study make a meaningful addition to the literature of this kind by providing the rationale for understanding the decision making styles and the risk attitudes of the Korean adults, which may serve as grounds for predicting the behaviors of the key individuals in various public and private sectors.

Keywords : Decision Making Styles, Risk Attitudes, General Decision Making Styles, Multiple Price List Design, Korean Adults

논문접수일 : 2016년 02월 05일 논문게재확정일 : 2016년 08월 31일

논문수정일(1차 : 2016년 08월 03일, 2차 : 2016년 08월 29일)

\* 이 논문은 서강대학교 경영학석사 학위논문(배은성, 의사결정 스타일과 위험성향의 관계에 관한 연구-한국인 표본을 대상으로, 2015년, 지도교수 : 민재형)에 기초한 연구임.

<sup>†</sup> 교신저자 jaemin@sogang.ac.kr

## 1. 서 론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와 복잡성 증대는 기업 및 정부로 하여금 이전보다 훨씬 빈번한 의사결정상황에 직면하도록 한다. 의사결정상황 하에서의 개인의 행동양식 및 습관을 나타내는 의사결정스타일은 개인의 행태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구성하고 있는 조직의 행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조직에서는 각 부서의 기능과 목적에 맞는 의사결정스타일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고, 개인은 자신의 의사결정스타일과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의사결정스타일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 대상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스타일을 파악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향후 행태를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의사결정스타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연구 결과의 실무 적용은 필수적인 과제이지만 그 동안 국내에서는 심리학의 영역 이외에서는 의사결정스타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한편, 위험에 대한 태도는 고전 경제학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고전 경제학에서는 개인의 위험성향을 대부분 위험회피형으로 가정하고 여러 이론들을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을 중심으로 이러한 가정이 항상 유효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위험추구형이나 위험중립형 인간 또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위험성향은 이론적인 영역을 넘어서 실무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자본시장통합법의 발효 후 금융기관들이 투자자의 위험성향을 반드시 측정하고 그에 맞추어 상품을 소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마케팅 분야에서도 소비자들의 위험성향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필수 항목이 되었다.

이처럼 의사결정스타일과 위험성향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에 대한 연구가 쉽게 진행되지 않는 큰 이유는 개인의 행태라는 정성적인 요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특히, 국내의 금융사들도 투자자가 자신의

위험성향이 무엇인지를 직접 기입하도록 하는 자기보고식 측정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방법은 투자자가 자신의 위험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또 자기보고식 측정은 설문 문항이 일반적으로 리커트 척도(Likert scales)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등간척도의 가정이 필요하고, 피실험자 간의 척도 사용에 대한 이질성(scale usage heterogeneity)과 문항 해석에 대한 이질성 등의 한계점도 존재한다[4]. 따라서 의사결정이론에 기반을 둔 보다 객관적인 위험성향의 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의 의사결정스타일과 위험성향을 측정하고, 성별, 연령대, 교육배경, 직업 등에 따른 이들의 분포를 확인한다. 또한 의사결정스타일에 따라 위험성향이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의사결정스타일과 위험성향의 특이점을 파악함으로써 기업이나 정부 등 다양한 조직의 의사결정 업무에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를 갖는다.

## 2. 이론적 배경

### 2.1 의사결정스타일

의사결정스타일은 학자에 따라 그 정의 및 분류가 다양하지만 개인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보여주는 특유의 행동양식 및 습관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각 개인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 축적된 독특한 의식구조, 습관, 심리 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나타나는 의사결정 행태를 측정하고 구분짓는 것이 의사결정스타일이다.

의사결정스타일에 관한 연구는 인간이 보이는 의사결정 행태의 이유를 개인의 성격이나 습관 등에서 찾기 위한 시도로부터 시작되었다[2]. 따라서 개인의 행동 및 성격 유형에 대한 기존 분류 및 심리학 이론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스타일을 정의하고 분류하려는 여러 시도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Harren

[23]은 의사결정스타일을 개인이 해결해야 할 의사결정과제를 인지하고 그에 반응하는 특징적인 유형이나 의사결정방식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대학생들이 커리어를 선택하는데 보이는 행동유형을 분류하여 합리형, 직관형, 의존형이라는 3가지 의사결정스타일을 제시하였다. Phillips et al.[39]은 의사결정스타일을 개인이 의사결정상황에 접근, 반응, 행동하는 특유의 방식으로 정의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자, 직관적 의사결정자, 의존적 의사결정자 등 3가지의 의사결정스타일을 제시하였다. Conteh[14]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사용하는 정보의 양과 고려하는 대안의 수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스타일을 분석-자문형, 분석-독재형, 직관-자문형, 직관-독재형 등 4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외에도 Eeidles-Maoz[19]는 지시형, 분석형, 개념형, 행동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남순현[3]은 지시형, 체계형, 의존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의사결정스타일을 구분하였다.

한편 Scott and Bruce[41]는 의사결정스타일을 의사결정상황에 직면한 개인에게 나타나는 학습된 습관적 반응양식이라고 정의하고, 의사결정스타일이 성격 특질이 아닌 구체적인 결정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습관 기반 성향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의사결정과 개인의 행태적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23, 32, 34, 39]를 통하여 의사결정스타일을 합리형(rational), 직관형(intuitive), 의존형(dependent), 회피형(avoidant) 등 4가지로 구분하였고, 요인분석을 통해 5번째 의사결정스타일인 즉흥형(spontaneous)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5가지로 구분된 의사결정스타일을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설문지인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GDMS : General Decision Making Styles)를 제안하였다.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에서 제안하는 5가지 의사결정스타일 중 합리형 스타일은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구조적인 행태를 보이며, 대안들의 평가에 있어서 논리적인 접근을 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직관형 스타일은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사고보다 느낌이나 예감에 주된 영향을 받으며, 대안들의

선택에 있어서도 인상이나 영감 등 주관적인 척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특성을 보인다. 의존형 스타일은 의사결정시에 타인의 충고나 조언 등에 의존하는 성향을 보인다. 따라서 의존형 스타일의 사람은 정보의 획득이나 대안의 선택에 있어서 조언을 해준 타인의 권위에 강한 영향을 받는 특성을 보인다. 회피형 스타일은 의사결정상황에 직면하면 의사결정과정에 돌입하지 않고 이를 최대한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려는 특성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즉흥형 스타일은 의사결정을 최대한 빨리 해치워서 즉각적으로 결과를 얻고자 하는 특징을 보인다.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는 각 유형별로 5개씩 총 25개의 설문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설문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설계되어 있다. 각 설문은 특정 의사결정상황에서의 행태나 심리를 제시하고 설문 참여자는 그것이 자신의 행태나 심리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답하는 자기보고 형식을 갖는다. 의사결정스타일에 대한 점수는 유형별로 25점이 최고점이며, 5개의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유형을 해당 개인의 지배적인 의사결정스타일로 판정한다. 설문 참여자가 특정 의사결정스타일로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해당 의사결정스타일에 절대적으로 속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5개의 의사결정스타일 중에서 특정 의사결정스타일에 가장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사결정스타일이 동점으로 인해 2개로 나타날 수도 있다.

Scott and Bruce[41]는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가 의사결정스타일과 관련한 기존 이론 및 실증연구의 문항[13]을 활용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를 확보하였고, 개발된 척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공인타당도(concurrent validity)를 확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 구분된 의사결정스타일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개인에게는 지배적인 의사결정스타일 외에도 부차적인 의사결정스타일이 존재하고[17], 5가지 의사결정스타일은 개념적으로 독립적인 유형이라는[23, 39]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그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

됨으로써 의사결정스타일과 관련한 다양한 실증연구 [15, 16, 33, 38]의 대표적인 측정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를 이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Mitchell and Flin[33]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의사결정스타일을 측정하고 위기상황 시나리오 별로 충을 쓰는 반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반응속도의 순서는 합리형, 직관형, 의존형, 즉흥형, 회피형 순임을 확인하였다. Parker et al.[38]은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기를 추구하는 극대화자(maximizer)는 즉흥적이고 의존적인 경향이 있음을 실증하였다. 또한 Di Fabio and Palazzeschi[15], Di Fabio and Kenny[16]는 감정지능과 의사결정스타일 간에 관계가 있는지를 이탈리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연구결과 수용성 항목은 합리형 스타일과, 대인관계 항목은 직관형 스타일과 정(+)의 관계를 보이는 등 감정지능의 각 항목별로 특정 의사결정스타일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음을 실증하였다.

의사결정스타일과 관련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김은주 외[2]는 Scott and Bruce[41]의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를 간략화한 한국형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를 제안하였다. 송소원[6]은 Harren[23]의 연구에 따라 의사결정스타일을 합리형, 직관형, 의존형으로 구분하고, 대학생을 표본으로 의사결정스타일과 자아존중감 및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자아존중감은 합리형 스타일과는 정(+)의 관계, 의존형 스타일과는 부(-)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제환[7]은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Harren[23]의 3가지 의사결정스타일 구분에 따른 정보이용행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의존형 스타일은 직관형 스타일에 비해 외부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의사결정스타일에 관한 국내 연구는 아직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특히 현재까지 진행된 의사결정스타일에 대한 연구들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표본이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한국인 표본을 대상으로 의사결정스타일을 측정하여 그 분포를 확인하고, 위험성향

과의 관계를 실증하고자 한다.

## 2.2 위험성향

개인의 불확실성에 대한 경향과 태도는 주로 위험성향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데, 이를 통해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를 측정해왔다. 개인마다 위험성향은 다를 수 있으며 동일인이라도 상황에 따라 위험성향이 변할 수 있다. 위험성향은 일찍이 경제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고, 특히 고전적 경제이론에서 의사결정자의 행동을 예측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나아가 위험성향은 경제이론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대표적으로 Kahneman and Tversky [29]는 위험성향을 심리학의 프레이밍 효과와 결합하여 준거점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위험성향이 달라진다는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제시하였다.

위험성향에 대한 연구로는 우선 위험성향에 따른 개인의 투자행태를 분석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Hana and Chen[22], 민재형과 구기동[5]은 투자자의 위험성향과 자산배분비율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Hana and Chen[22]은 투자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개인의 위험성향과 관계없이 소형주 투자에 집중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국공채 투자비율이 높으며,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대형주 및 소형주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민재형과 구기동[5]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경우,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성향을 보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한민희 외[10]는 금융고객의 위험성향과 구매행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사람들의 위험성향은 일관되지 않으며, 위험추구적 성향이 강할수록 위험자산의 투자비율이 높고, 위험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정보의 유형도 다르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또 Malkiel[31], Hickman et al.[26], 허경옥과 박귀영[11]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위험성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해지므로 주식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유동성자산 및 채권에 대한 투자비율을 높이는 것을 제안하였고, 남성과 전문직 종사자는 위험추구적인 성향이 강한 반면, 40대 이상과 고소득자는 현상유지 성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상기의 연구들은 개인이 자신의 위험성향에 대해 스스로 진단하고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에 의존하여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위험성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개인의 위험성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Pratt[40]은 화폐가치 또는 자산에 대한 개인의 효용함수를 이용하여 특정 금액에서의 위험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함과 함께 이를 이용하여 위험자산에 대한 확실성등가(certainty equivalent), 그리고 위험자산의 기대값에서 확실성등가를 차감한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또한 MacCrimmon and Wehrung[30]는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가는 In-Basket 방법을 사용하여 위험성향을 측정하기도 하였다. 개인의 위험성향을 측정하는 방법들 중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보편화된 방법은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이다. 기대효용이론에서는 개인의 효용함수가 오목함수(concave function)일 경우 위험회피성향을, 볼록함수(convex function)일 경우 위험추구성향을, 그리고 선형함수(linear function)로 나타나는 경우 위험중립성향을 가진다고 한다. 이러한 기대효용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의 위험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 설계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Holt and Laury[27]가 제시한 다중가격제시설계(Multiple Price List Design)이다.

다중가격제시설계는 실험참가자에게 두 개의 복권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태의 질문을 10개 제시한다. 각 질문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복권과 상대적으로 위험한 복권 한 쌍이 제시되고, 당첨확률을 문제에 따라 증가시킨다. 예를 들어,  $p$ 의 확률로 금액  $x$ 에 당첨되고  $(1-p)$ 의 확률로 금액  $y$ 에 당첨되

는 상황을  $(x, p; y, 1-p)$ 로 표현했을 때, 상대적으로 안전한 복권(복권 A)은 금액  $x$ 와  $y$ 의 차이를 작게, 상대적으로 위험한 복권(복권 B)은 금액  $x$ 와  $y$ 의 차이를 크게 설정한다. 그리고 10개의 복권 선택 질문에서  $p$ 를 0.1에서 1까지 0.1의 간격으로 증가시킨다. 이때 최초 복권 A의 기대 당첨금액은 복권 B보다 크게 설정이 되고,  $p$ 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복권 A와 복권 B의 기대 당첨금액의 차이는 줄어들다가  $p$ 가 0.5가 되는 시점부터 그 차이는 역전이 되어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이후로  $p$ 가 1에 다가가면서 기대 당첨금액의 차이는 더욱 큰 음의 값을 갖게 되어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형태로 구성된다.

다중가격제시설계는 개인의 선택이 어느 시점에서 복권 A에서 복권 B로 변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개인의 위험성향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위험추구성향을 가진 사람은  $p$ 가 0.1인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복권 B를 선택할 것이며, 극단적인 위험회피성향을 가진 사람은  $p$ 가 1인 마지막 질문이 되어야 복권 B를 선택할 것이다. 위험중립성향을 가진 사람은 복권 B의 기대 당첨금액이 복권 A의 기대 당첨금액을 넘어서는 시점인  $p = 0.5$ 일 때 복권 B를 선택할 것이다.

Holt and Laury[27]는 다중가격제시설계를 이용하여 개인의 위험성향을 측정하면서 복권의 당첨금액이 높아질수록 실험참가자들의 응답이 더 위험회피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Harrison et al.[24]은 Holt and Laury[27]에 대해 동일 표본을 대상으로 당첨금액을 변화시켜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순서효과를 통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금액의 규모에 따른 위험성향의 변동이 과대평가되었다고 비판하였다. Holt and Laury[28]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 순서효과를 통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연구 결과 당첨금액의 증가에 따른 위험회피성향의 증가가 과장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Goeree et al.[18]은 다중가격제시설계와 다른 게임으로 측정한 위험성향도 다중가격제시설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고, Harrison et al.[25]은 실험실이 아닌 외부에서도 다중가격제시설계의

복권선택 문제가 위험성향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 Nossair and Wu[35]는 다중가격제시설계를 이용한 복권선택 실험에 대하여 복권당첨 결과와 상금의 지급이 현재에 발생하느냐 미래에 발생하느냐에 따라 위험성향이 차이를 보이는지를 연구하였다. 이들 연구는 다중가격제시설계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위험성향의 측정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지지하고 있다.

### 3. 실증 분석

#### 3.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표본의 위험성향과 의사결정스타일을 측정하고, 그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먼저 다중가격제시설계를 통해 표본의 위험성향을 측정하고, 이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현재 시점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들의 성별, 연령대, 교육배경, 직업형태 등에 따른 위험성향의 분포를 확인하고,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를 이용하여 개인의 의사결정스타일을 측정하고, 척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 추가적으로 표본에서 의사결정스타일이 뚜렷하게 구분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유형별 점수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합리형으로 나타난 표본의 합리형 점수와 합리형이 아닌 나머지 표본의 합리형 점수를 비교하여 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여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의 신뢰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표본의 성별, 연령대, 교육배경, 직업형태 등에 따른 의사결정스타일의 분포를 빈도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카이제곱검정을 통하여 분포에 대한 통계적인 차이 여부를 파악한다. 아울러 개인은 두 가지 이상의 의사결정스타일을 동시에 보일 수도 있으므로 가장 지배적인 의사결정스타일에 대하여 그 다음으로 유형별 점수가 높은 차순위 의사결정스타일을 함께 파악하고, 이들의 분포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스타일 간의 관계를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스타일별로 위험성향이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의사결정스타일 하에서 1부터 10까지로 표현되는 위험성향의 빈도를 분석한다. 또한 의사결정스타일별로 위험성향의 빈도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특정 의사결정스타일의 개인이 어떠한 위험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지 파악한다.

#### 3.2 위험성향과 의사결정스타일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위험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Holt and Laury[27]의 다중가격제시설계를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당첨금액의 규모에 따른 위험성향의 변동을 통제하기 위해 실험 참가자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만한 금액임과 동시에 의사결정에 과도한 부담감을 느낄 정도의 거액은 아닌 수준의 금액으로 135만 원을 설정하였고, 이 금액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월 생활비[9]를 근거로 책정하였다. 이에 따라 복권 A를 상대적으로 안전한 복권, 복권 B를 상대적으로 위험한 복권으로 설정하고, 당첨확률이 0.5일 때 복권 A의 당첨금액의 기대값이 135만 원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중가격제시설계의 복권별 당첨금액과 그 확률, 당첨금액의 기대값, 그리고 복권의 당첨금액 기대값 차이는 <표 1>에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의사결정스타일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Scott and Bruce[41]의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를 한국어로 간략화한 김은주 외[2]의 한국형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형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는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기존의 설문지에서 각 유형별로 하나씩의 질문을 제거하여 유형별로 4개 문항,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각 의사결정스타일에 대한 점수는 20점이 최고점이고 5개의 의사결정스타일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사결정스타일을 해당 개인의 지배적인 의사결정스타일로 판정한다. 한국형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의 유형별 평가문항은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1〉 본 연구의 다중가격제시설계

질문	부권 A		부권 B		부권 A 기대값 (①)	부권 B 기대값 (②)	기대값 차이 (①-②)
	확률	금액(천원)	확률	금액(천원)			
1	0.1	1,500	0.1	3,000	1,230	372	858
	0.9	1,200	0.9	80			
2	0.2	1,500	0.2	3,000	1,260	664	596
	0.8	1,200	0.8	80			
3	0.3	1,500	0.3	3,000	1,290	956	334
	0.7	1,200	0.7	80			
4	0.4	1,500	0.4	3,000	1,320	1,248	72
	0.6	1,200	0.6	80			
5	0.5	1,500	0.5	3,000	1,350	1,540	-190
	0.5	1,200	0.5	80			
6	0.6	1,500	0.6	3,000	1,380	1,832	-452
	0.4	1,200	0.4	80			
7	0.7	1,500	0.7	3,000	1,410	2,124	-714
	0.3	1,200	0.3	80			
8	0.8	1,500	0.8	3,000	1,440	2,416	-976
	0.2	1,200	0.2	80			
9	0.9	1,500	0.9	3,000	1,470	2,708	-1,238
	0.1	1,200	0.1	80			
10	1	1,500	1	3,000	1,500	3,000	-1,500
	0	1,200	0	80			

〈표 2〉 한국형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의 유형별 문항

유형	문항
합리형	Q5. 나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Q8.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주의 깊게 생각을 한다.
	Q10. 결정을 내릴 때, 나는 구체화된 목표와 관련하여 다양한 선택안을 고려한다.
	Q20. 나는 대부분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직관형	Q1. 결정을 내릴 때 나는 나의 직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Q2. 결정을 내릴 때, 나는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는 것보다는 그 결정이 옳다고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
	Q9. 결정을 내릴 때, 나는 나의 내적 느낌과 반응을 믿는다.
	Q13. 결정을 내릴 때 나는 나의 본능에 의존한다.
의존형	Q3.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다른 사람의 충고를 활용한다.
	Q7. 내가 중요한 결정에 직면할 때,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
	Q14.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주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Q18. 만약 다른 사람들의 지원을 받는다면,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쉬워진다.
즉흥형	Q6. 나는 일반적으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다.
	Q12. 나는 자주 충동적인 결정을 내린다.
	Q16. 나는 자주 계획이나 준비 없이 얼떨결에 결정을 내린다.
	Q19. 나는 빨리 결정을 내린다.
회피형	Q4. 결정을 내리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미룬다.
	Q11. 나는 압박을 받을 때까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한다.
	Q15. 나는 언제든지 가능한 한 의사결정 하는 것을 연기한다.
	Q17. 나는 자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미룬다.

주) Q<sub>n</sub>은 n 번째 설문을 나타낸다.

### 3.3 표본의 선정

2015년 5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대한민국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2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한국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위험성향 및 의사결정스타일의 분포를 탐색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을 표본으로 하는 기존의 의사결정스타일 및 위험성향과 관련된 연구[6, 7, 15, 16, 24, 25, 27, 35, 41]와는 달리 다양한 연령대, 교육배경, 직업을 가진 표본을 판단 추출하여 수집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성별, 연령대, 교육배경(전공), 직업형태로 구분하였으며, 성별에서는 남성(60%)이, 교육배경에서는 상경계열(29%)과 공학계열(27%), 연령대로는 30대(52%), 그리고 직업형태로는 일반사무직(47%)이 가장 많이 표본에 포함되었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에 정리하였다.

## 4. 분석 결과

### 4.1 위험성향

본 연구에서 위험성향은 앞서 제시한 복권 선택 문제에서 실험참가자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복권(복권 A)에서 상대적으로 위험한 복권(복권 B)으로 선택을 변경하는 최초의 시점으로 측정된다. 따라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복권 선택 변경 시점의 빈도를 파악함으로써 위험성향의 분포를 확인하

고, 특성에 따른 분포의 차이 여부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수행한다. 카이제곱검정 수행 시에는 위험성향을 위험추구형(1~3), 위험중립형(4~6), 위험회피형(7~10)의 세 가지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표본의 성별 위험성향의 분포와 카이제곱검정 결과는 <표 4>, 연령대별 위험성향의 분포와 카이제곱검정 결과는 <표 5>에 각각 정리하였다.

먼저 <표 4>의 마지막 열에 나타난 전체적인 위험성향의 분포를 살펴보면 질문 10에서 처음으로 복권 B를 선택한 극단적으로 위험회피적인 실험참가자(24%)와 질문 5에서 복권의 선택을 변경한 위험중립적인 실험참가자(23%)가 유난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향의 분포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위험회피적인 인간과는 차이가 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위험회피적 성향을 가진 설문 참여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위험중립형 및 위험추구형 역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질문 5에서 선택의 변경이 이루어질수록 위험중립적인 성향이 강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위험중립적 성향의 개인과 위험회피적 성향의 표본비율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와 중요한 차이점을 보인다. 기존의 다중가격제시설계를 이용한 연구들은 표본의 대부분이 위험회피형에 속하였으며, 그 안에서 극단적 위험회피형보다는 약한 위험회피형이나 보통의 위험회피형에 주로 분포되었다. 하지만 본

<표 3>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도(백분율)	구 분		빈도(백분율)
성별	남성	130(60%)	연령대	20대	85(39%)
	여성	87(40%)		30대	112(52%)
교육 배경 (전공)	인문계열	20(9%)		40대 이상	20(10%)
	언어계열	14(6%)	직업 형태	개인사업자	10(5%)
	사회계열	14(6%)		교육종사자	16(7%)
	상경계열	64(29%)		기술직 및 영업직	37(17%)
	자연계열	22(10%)		일반사무직	103(47%)
	공학계열	58(27%)		학생	51(24%)
	의학계열	6(3%)		계	217
	예체능계열	19(9%)			

연구에서는 표본의 위험성향의 분포가 위험중립형과 극단적 위험회피형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미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본 연구는 한국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나타난 차이로 표본의 특성에 따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성향의 분포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더욱 확실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 기존 연

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험회피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반면 남성의 경우, 위험중립적 성향을 나타내는 질문 5의 빈도수가 전체 남성의 32%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남성과 여성의 위험성향 분포는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차이(p-값 = 0.0045)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과 여성의 위험성향의 차이점은 위험중립적 성향을 나타내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매우 많다는 것이다.

〈표 4〉 성별 위험성향의 분포

질문	남성		여성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위험추구)	5	4%	5	6%	10	5%
2	1	1%	4	5%	5	2%
3	6	5%	2	2%	8	4%
4	14	11%	8	9%	22	10%
5(위험중립)	<b>41</b>	<b>32%</b>	9	10%	<b>50</b>	<b>23%</b>
6	5	4%	4	5%	9	4%
7	9	7%	10	11%	19	9%
8	10	8%	10	11%	20	9%
9	10	8%	12	14%	22	10%
10(위험회피)	29	22%	<b>23</b>	<b>26%</b>	<b>52</b>	<b>24%</b>
합계	130	100%	87	100%	217	100%
구 분 (남성, 여성) (위험추구, 위험중립, 위험회피)			자유도	카이제곱통계량	p-값	
			2	10.804	0.0045	

〈표 5〉 연령대별 위험성향의 분포

질문	20대		30대		40대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위험추구)	6	7%	3	3%	1	5%
2	3	4%	2	2%	0	0%
3	4	5%	4	4%	0	0%
4	5	6%	<b>15</b>	<b>13%</b>	2	10%
5(위험중립)	12	14%	<b>34</b>	<b>30%</b>	4	20%
6	2	2%	5	4%	2	10%
7	10	12%	6	5%	3	15%
8	11	13%	8	7%	1	5%
9	12	14%	8	7%	2	10%
10(위험회피)	20	24%	27	24%	5	25%
합계	85	100%	112	100%	20	100%
구 분 (20대, 30대, 40대 이상) (위험추구, 위험중립, 위험회피)			자유도	카이제곱통계량	p-값	
			4	15.002	0.0047	

연령대에 따른 위험성향의 분포인 <표 5>를 보면, 남녀의 차이와 같은 극적인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30대에서의 위험중립적 성향(30%)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도 연령대별로 위험성향 분포에는 의미 있는 차이( $p$ -값 = 0.0047)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배경별 위험성향의 분포는 <표 6>에 정리하였다.

<표 6>은 교육배경, 즉 전공별로 위험성향의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다. 먼저 <표 6>의 표본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학계열(22%)과 상경계열(39%), 그리고 의학계열(33%) 등 응용학문의 교육을 받은 실험참가자들이 위험중립

성향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있으며, 언어계열(36%), 인문계열(35%), 그리고 자연계열(32%) 등 순수학문 교육을 받은 실험참가자들은 극단적 위험회피성향을 더 많이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카이제곱검정 결과를 보면 교육배경별 위험성향의 분포는 유의수준 10%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정 결과는 카이제곱 검정에 사용된 범주의 수와 각 범주에 속한 관측치의 수에 따른 것으로, 8개 교육배경과 3가지 위험성향으로 구성된 통계분할표의 24개 셀 각각에 속한 관측치의 수가 충분하지 않아 교육배경에 따른 위험성향의 분포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교육배경별 위험성향의 분포

질문	공학계열		사회계열		상경계열		언어계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위험추구)	2	3%	0	0%	2	3%	1	7%
2	0	0%	0	0%	0	0%	0	0%
3	2	3%	1	7%	2	3%	0	0%
4	<b>8</b>	<b>14%</b>	2	14%	5	8%	3	21%
5(위험중립)	<b>13</b>	<b>22%</b>	1	7%	<b>25</b>	<b>39%</b>	1	7%
6	<b>6</b>	<b>10%</b>	1	7%	0	0%	1	7%
7	4	7%	2	14%	5	8%	3	21%
8	4	7%	2	14%	8	13%	0	0%
9	4	7%	2	14%	8	13%	0	0%
10(위험회피)	15	26%	3	21%	9	14%	<b>5</b>	<b>36%</b>
합계	58	100%	14	100%	64	100%	14	100%

  

질문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인문계열		자연계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위험추구)	1	5%	1	17%	2	10%	1	5%
2	1	5%	0	0%	2	10%	2	9%
3	2	11%	0	0%	1	5%	0	0%
4	1	5%	1	17%	0	0%	2	9%
5(위험중립)	3	16%	<b>2</b>	<b>33%</b>	2	10%	3	14%
6	0	0%	0	0%	0	0%	1	5%
7	1	5%	1	17%	2	10%	1	5%
8	3	16%	0	0%	1	5%	2	9%
9	2	11%	0	0%	3	15%	3	14%
10(위험회피)	5	26%	1	17%	<b>7</b>	<b>35%</b>	<b>7</b>	<b>32%</b>
합계	19	100%	6	100%	20	100%	22	100%

  

구 분	자유도	카이제곱통계량	p-값
(8개 교육배경) (위험추구, 위험중립, 위험회피)	14	20.386	0.1184

<표 7> 순수학문과 응용학문에 따른 위험성향분포의 차이 검정

구 분	자유도	카이제곱 통계량	p-값
(순수학문, 응용학문) (위험추구, 위험중립, 위험회피)	2	12.886	0.0016

따라서 교육배경을 순수학문과 응용학문 두 가지로 묶어 학문분야에 따른 위험성향의 차이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즉, 언어계열,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자연계열을 순수학문으로, 공학계열, 사회계열, 상경계열, 의학계열을 응용학문으로 구분하여 추가적인 카이제곱검정을 수행하였고, 그 검정결과를 <표 7>에 정리하였다.

<표 7>의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순수학문과 응용학문은 위험성향의 분포에 있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함(p-값 = 0.0016)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분야의 특성에 따라 사람의 위험성향은 차이를 보임을 의미한다. 순수학문의 목적은 앎, 진리탐구 그 자체에 있는 반면, 응용학문에서의 진리탐구는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8]. 따라서 응용학문을 전공한 사람들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배운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응용학문을 전공한 사람들은 위험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다중가격제시설계 판단과제에서도 보다 객관적인 시각

으로 접근하여, 순수학문을 전공한 사람들보다 위험중립적 성향을 많이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직업유형별 위험성향의 분포는 <표 8>에 정리하였다.

<표 8>은 5개 직업유형에 따른 위험성향의 분포를 보여준다.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위험중립성향(40%)에 분포되어 있다. 기술 및 영업직에 종사하는 실험참가자들도 위험중립성향(22%)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교육에 종사하는 실험참여자들은 극단적 위험회피형(44%)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일반사무직과 학생은 표본 전체의 위험성향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통계적으로도 직업유형에 따라 위험성향의 분포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p-값 = 0.0006)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유형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개인사업자나 기술 및 영업직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교육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위험에 대한 노출이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8> 직업유형별 위험성향의 분포

질문	개인사업자		교육종사자		기술/영업직		일반사무직		학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위험추구)	1	10%	1	6%	2	5%	2	2%	4	8%
2	0	0%	0	0%	1	3%	2	2%	2	4%
3	0	0%	2	13%	3	8%	1	1%	2	4%
4	2	20%	0	0%	8	22%	9	9%	3	6%
5(위험중립)	4	40%	0	0%	8	22%	28	27%	10	20%
6	2	20%	0	0%	1	3%	5	5%	1	2%
7	0	0%	2	13%	2	5%	12	12%	3	6%
8	0	0%	3	19%	3	8%	8	8%	6	12%
9	0	0%	1	6%	3	8%	12	12%	6	12%
10(위험회피)	1	10%	7	44%	6	16%	24	23%	14	27%
합계	10	100%	16	100%	37	100%	103	100%	51	100%

  

구 분	자유도	카이제곱통계량	p-값
(5개 직업유형) (위험추구, 위험중립, 위험회피)	8	27.592	0.0006

## 4.2 한국형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의사결정스타일 구분을 위해 이용한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가 본 연구의 표본에 적합한 측정도구인지, 그리고 의사결정스타일의 측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요인별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여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고, 척도의 구성개념에 대한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집중타당성이란 측정문항들이 구성개념에 수렴하는지, 다시 말해 각 문항이 의사결정스타일의

특성을 일관적으로 설명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개별문항의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과 구성요인의 평균분산추출값(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 및 개념신뢰도(CR : composite reliability)로 평가한다[21]. 한국형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의 신뢰성과 집중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산출한 크론바흐 알파 값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9>에 정리하였다.

<표 9>의 크론바흐 알파 값을 보면, 합리형 스타일은 0.801, 직관형 스타일은 0.836, 의존형 스타일은 0.787, 회피형 스타일은 0.863, 그리고 즉흥형 스타일은 0.892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값들 모두 크론바흐 알파 값의 일반적 기준인 0.7[21, 36]을 초과하는 것으로 내적일관성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준화된 요인적재량도

<표 9> 한국형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의 신뢰성 및 집중타당성 검증

의사결정 스타일	신뢰성 크론바흐 알파	확인적 요인분석						AVE	CR
		문항	비표준화 요인적재량	표준 오차	t-값	표준화된 요인적재량			
합리형	0.801	Q5	1	-	-	0.750	0.582	0.846	
		Q8	0.939	0.083	11.32***	0.828			
		Q10	0.67	0.086	7.826***	0.564			
		Q20	0.752	0.073	10.27***	0.738			
직관형	0.836	Q1	1	-	-	0.927	0.560	0.832	
		Q2	1.093	0.072	15.12***	0.824			
		Q9	0.637	0.063	10.11***	0.620			
		Q13	0.67	0.062	10.8***	0.651			
의존형	0.787	Q3	1	-	-	0.735	0.508	0.804	
		Q7	1.042	0.111	9.351***	0.747			
		Q14	0.743	0.086	8.644***	0.674			
		Q18	0.873	0.107	8.191***	0.633			
회피형	0.863	Q4	1	-	-	0.758	0.602	0.858	
		Q11	1.223	0.088	13.98***	0.919			
		Q15	1.161	0.094	12.39***	0.812			
		Q17	1.05	0.086	12.18***	0.800			
즉흥형	0.892	Q6	1	-	-	0.824	0.617	0.863	
		Q12	0.699	0.061	11.5***	0.690			
		Q16	1.012	0.058	17.5***	0.975			
		Q19	0.698	0.063	11.15***	0.674			

주)1. 여기서 문항은 <표 2>의 문항을 말한다.

2. \*, \*\*, \*\*\*은 유의수준 10%, 5%, 1% 각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모든 문항에서 일반적 기준인 0.5를 초과하는 수치를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수준 1%에서 유의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산출된 AVE와 CR 값 역시 각각의 일반적 기준인 0.5[20, 21]와 0.7[37]을 초과하는 값으로 나타나,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는 본 연구의 표본으로 의사결정스타일을 측정하는데 있어 신뢰성과 집중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의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와 해당 요인의 AVE 제곱근을 비교한다. 판별타당성이란 구성요인들 사이에 차별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해당 요인의 AVE 제곱근보다 작을 경우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의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결정스타일 간의 상관계수 및 각 의사결정스타일의 AVE 제곱근은 <표 10>에 정리하였다.

<표 10>을 살펴보면 직관형 스타일과 즉흥형 스타일의 상관계수(0.524)를 제외하면, 상관계수는

모두 0.5 미만의 작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직관형 스타일과 즉흥형 스타일의 상관계수는 0.5를 초과하지만, 이 수치 또한 AVE 제곱근 값이 가장 작은 의존형 스타일의 값(0.713)보다 작기 때문에,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는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가 5가지 의사결정스타일을 명확히 구분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검정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의 첫 번째 행의 결과를 보면 합리형 스타일로 분류된 사람들이 받은 합리형 문항의 평균점수와 나머지 스타일로 분류된 사람들이 받은 합리형 문항의 평균점수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직관형, 의존형, 회피형, 즉흥형 등 4개의 의사결정스타일 모두에 있어서도 1% 유의수준에서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를 이용해 측정된 의사결정스타일은 명확하게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 한국형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의 판별타당성 검증

구 분	합리형	직관형	의존형	회피형	즉흥형
합리형	0.763				
직관형	-0.380	0.748			
의존형	0.368	-0.191	0.713		
회피형	-0.256	-0.218	0.326	0.776	
즉흥형	-0.483	0.524	-0.035	-0.060	0.785

주) 음영으로 표시된 행렬의 대각선 상 수치는 AVE의 제곱근을 나타낸다.

<표 11> 의사결정스타일의 차이 분석 결과

구 분	해당 의사결정스타일		나머지 의사결정스타일		t 통계량	p-값
	표본크기	평균점수	표본크기	평균점수		
합리형	77	16.52	140	12.51	15.36	< 0.001
직관형	37	15.95	180	11.72	15.09	< 0.001
의존형	43	16.53	174	9.31	22.06	< 0.001
회피형	34	17.02	183	12.15	17.51	< 0.001
즉흥형	26	16.85	17	10.33	17.99	< 0.001

주) 해당 의사결정스타일은 표의 첫 번째 열에 있는 의사결정스타일이 가장 지배적인 실험참가자를 의미하고, 나머지 의사결정스타일은 전체 표본에서 해당 의사결정스타일 표본을 제외한 실험참가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평균점수는 표의 첫 번째 열에 있는 의사결정스타일에 해당하는 20점 만점의 유형별 점수의 평균을 의미한다.

### 4.3 의사결정스타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의사결정스타일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통계적인 검증을 위한 카이제곱검정을 수행하였다. 먼저 표본에 대한 성별 의사결정스타일의 분포는 <표 12>와 같다.

우선 <표 12>의 마지막 열에 나타난 실험참가자들의 전체적인 의사결정스타일의 분포를 보면 합리형을 나타내는 실험참가자가 전체의 35%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직관형은 전체의 17%, 의존형은 전체의 20%, 회피형은 전체의 16%, 즉흥형은 가장 낮은 12%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표본에 대한 의사결정스타일의 빈도분석을 수행하지 않고 개인의 물리적, 정신적 특성들과의 관계만을 규명하였기 때문에 외국 표본과의 분포 차이

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한국 성인의 개략적인 의사결정스타일의 분포는 본 연구로 추정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의사결정스타일의 분포를 보면, 통계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의 의사결정스타일 분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리형 스타일(39%)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존형 스타일(26%)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표본의 연령대에 따른 의사결정스타일의 분포는 <표 13>에 정리하였다.

<표 13>의 연령대에 따른 의사결정스타일의 분포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경우는 표본 전체의 의사결정스타일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또 통계적으로도 연령대별 의사결정스타일의 분포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

<표 12> 성별에 따른 의사결정스타일의 분포

의사결정스타일	남성		여성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리형	51	39%	26	30%	77	35%
직관형	21	16%	16	18%	37	17%
의존형	20	15%	23	26%	43	20%
회피형	22	17%	12	14%	34	16%
즉흥형	16	12%	10	11%	26	12%
합계	130	100%	87	100%	217	100%
구 분 (남성, 여성) (5개 의사결정스타일)			자유도	카이제곱통계량	p-값	
			4	5.003	0.2870	

<표 13> 연령대별 의사결정스타일의 분포

의사결정스타일	20대		30대		40대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리형	30	35%	41	37%	6	30%
직관형	12	14%	18	16%	7	35%
의존형	19	22%	23	21%	1	5%
회피형	13	15%	16	14%	5	25%
즉흥형	11	13%	14	13%	1	5%
합계	85	100%	112	100%	20	100%
구 분 (20대, 30대, 40대 이상) (5개 의사결정스타일)			자유도	카이제곱통계량	p-값	
			8	9.1619	0.3288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0대 이상의 경우 직관형 스타일(35%)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특이점을 보이는데, 이는 사람들이 연륜과 경험이 쌓이면서 의사결정상황에서 점점 자신의 직관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습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표본의 교육배경에 따른 의사결정스타일의 분포는 <표 14>와 같다.

<표 14>의 교육배경에 따른 의사결정스타일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값 = 0.0084).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교육배경이 의사결정스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표 14>에서 특이점은 의학계열을 전공한 사람들의 경우 표본의 크기는 작지만 6명 전원이 의존형 스타일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히 큰 표본을 이용한 추가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결과는 합리적 근거를 중요시하는 의료인의 전문적 소양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를 비롯한 의료계 종사자 집단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

어 있고, 직무 수행에 있어 협업이 많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의료계 종사자들은 보다 정확한 처방을 위해 개인의 전문성과 합리성 이외에도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합리형과 의존형이 정(+)의 관계가 있다는 <표 10>과 <표 16>의 결과도 이러한 해석을 지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표본의 직업유형에 따른 의사결정스타일의 분포는 <표 15>에 정리하였다.

<표 15>를 보면 직업별 의사결정스타일의 분포도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10%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에서 <표 15>까지의 카이제곱검정 결과를 정리해보면, 개인의 의사결정스타일에는 성별과 연령대 등 선천적인 원인보다는 교육배경 및 개인이 종사하는 직업적인 특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반이 직관형 스타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직감에 의한 판단과 일치리를 하는 경향이 높음을 함의한다.

<표 14> 교육배경별 의사결정스타일의 분포

의사결정스타일	공학계열		사회계열		상경계열		언어계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리형	19	33%	4	29%	33	52%	3	21%
직관형	10	17%	4	29%	11	17%	3	21%
의존형	9	16%	3	21%	8	13%	4	29%
회피형	11	19%	1	7%	9	14%	2	14%
즉흥형	9	16%	2	14%	3	5%	2	14%
합계	58	100%	14	100%	64	100%	14	100%

  

의사결정스타일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인문계열		자연계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리형	5	26%	0	0%	5	25%	8	36%
직관형	3	16%	0	0%	4	20%	2	9%
의존형	3	16%	<b>6</b>	<b>100%</b>	5	25%	5	23%
회피형	2	11%	0	0%	4	20%	5	23%
즉흥형	6	32%	0	0%	2	10%	2	9%
합계	19	100%	6	100%	20	100%	22	100%

  

구 분	자유도	카이제곱통계량	p-값
(8개 교육배경) (5개 의사결정스타일)	28	48.9566	0.0084

다음으로 각 의사결정스타일 하에서 차순위 의사결정스타일의 분포는 어떠한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는 <표 16>과 같으며,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예를 들어,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를 이용한 의사결정스타일 측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스타일이 합리형이고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스타일이 의존형인 사람의 빈도수는 48명이고, 이는 합리형 스타일의 62%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개인은 오직 한 가지의 의사결정스타일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복수의 의사결정스타일을 함께 가질 수 있다. 그 중 가장 지배적인 의사결정스타일이 그 개인의 의사결정스타일로 명명된다. 따라서 <표 16>과 같이 차순위 의사결정스타일의 분포를 파악함으로써 의사결정스타일 간의 의미 있는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합리형 스타일의 차순위 스타일로는 의존형(62%)과 직관형(29%)이, 직관형 스타일의 경우 합리형(43%)과 즉흥형(41%)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회피

형 스타일은 합리형(50%)과 의존형(32%)이 두 번째로 지배적인 스타일일 가능성이 높았고, 의존형의 경우 합리형(63%), 즉흥형의 경우 직관형(77%)이 차순위 스타일 중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 중 합리형 스타일과 의존형 스타일은 상호간에 차순위 의사결정스타일 비율이 60%를 초과하고, 직관형 스타일과 즉흥형 스타일의 상호간 차순위 스타일 비율은 40%를 초과하여 이들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표 10>의 의사결정스타일 간의 상관계수를 보아도 합리형 스타일과 의존형 스타일, 직관형 스타일과 즉흥형 스타일은 정(+)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합리형 스타일의 경우 본인의 편향된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 타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직관형 스타일의 경우 직관과 감(gut feeling)에 의존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5> 직업유형별 의사결정스타일의 분포

질문	개인사업자		교육종사자		기술/영업직		일반사무직		학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리형	2	20%	4	25%	11	30%	39	38%	21	41%
직관형	<b>6</b>	<b>60%</b>	1	6%	4	11%	20	19%	6	12%
의존형	1	10%	4	25%	9	24%	18	17%	11	22%
회피형	1	10%	3	19%	5	14%	17	17%	8	16%
즉흥형	0	0%	4	25%	8	22%	9	9%	5	10%
합계	10	100%	16	100%	37	100%	103	100%	51	100%
구 분					자유도		카이제곱통계량		p-값	
(5개 직업유형) (5개 의사결정스타일)					16		25.4207		0.0627	

<표 16> 차순위 의사결정스타일

의사결정스타일	차순위 스타일	빈도	비율
합리형	의존형	48명/77명	62%
	직관형	22명/77명	29%
직관형	합리형	16명/37명	43%
	즉흥형	15명/37명	41%
회피형	합리형	17명/34명	50%
	의존형	11명/34명	32%
의존형	합리형	27명/43명	63%
즉흥형	직관형	20명/26명	77%

#### 4.4 위험성향과 의사결정스타일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스타일과 위험성향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의사결정스타일에 따른 위험성향의 분포는 <표 17>에 정리하였다.

<표 17>을 보면 합리형 스타일의 사람들은 전체 표본의 위험성향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 위험중립형과 극단적 위험회피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표본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위험추구적 성향을 가지는 사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위험회피형에 밀집된 분포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합리형 스타일의 위험성향은 위험회피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위험중립적일 가능성도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직관형 스타일의 실험참가자들은 위험중립형에 분포가 밀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험추구적인 사람의 빈도와 위험회피적인 사람의 빈도가 흡사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직관형 의사결정스타일의 위험성향은 위험중립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위험추구적 태도를 갖는 사람이 다른 의사결정스타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결과는 사람의 성격유형 중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사람들은 모험적이고, 위험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Behling et al.[12]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의존형 스타일의 실험참가자들은 위험중립형을 중심으로 약한 위험회피형과 약한 위험추구형에 집중된 분포를 보인다. 직관형 스타일보다는 위험추구형의 비중이 낮지만, 다른 스타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위험을 추구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에 대한 의존성이 강할수록 의사결정에 확신을 갖게 된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보에 대한 의존성이 강한 의존형 스타일은 이와 같은 의사결정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위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수용하는 정도가 강할수록[11], 자신의 생각보다 타인의 생각을 더욱 중시하는 외향적인 성격이 강할수록[1] 위험을 추구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러한 판단을 지지한다.

회피형 스타일의 실험참가자들은 특이한 위험성향 분포를 보여준다. 위험추구형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실험참가자들이 극단적 위험회피형이나 강한 수준의 위험회피형에 밀집되어 있다. 회피형 스타일의 사람들은 대부분 위험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특히 회피형 스타일을 가지는 실험참가자의 89%가 극단적에서 강한

<표 17> 의사결정스타일에 따른 위험성향의 분포

위험성향	합리형		직관형		의존형		회피형		즉흥형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위험추구)	1	1%	2	5%	4	9%	0	0%	3	12%
2	1	1%	3	8%	0	0%	0	0%	1	4%
3	4	5%	1	3%	0	0%	0	0%	3	12%
4	4	5%	<b>8</b>	<b>22%</b>	<b>8</b>	<b>19%</b>	1	3%	1	4%
5(위험중립)	<b>20</b>	<b>26%</b>	<b>12</b>	<b>32%</b>	<b>10</b>	<b>23%</b>	3	9%	<b>5</b>	<b>19%</b>
6	2	3%	1	3%	<b>5</b>	<b>12%</b>	0	0%	1	4%
7	9	12%	1	3%	<b>6</b>	<b>14%</b>	0	0%	3	12%
8	9	12%	2	5%	2	5%	<b>6</b>	<b>18%</b>	1	4%
9	10	13%	3	8%	4	9%	<b>4</b>	<b>12%</b>	1	4%
10(위험회피)	<b>17</b>	<b>22%</b>	4	11%	4	9%	<b>20</b>	<b>59%</b>	<b>7</b>	<b>27%</b>
합계	77	100%	37	100%	43	100%	34	100%	26	100%

위험회피형에 해당한다는 것은 불확실한 의사결정 상황에 어려움을 느끼는 회피형 스타일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대부분의 의사결정상황은 결과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회피형 스타일은 위험이 내재된 확률적 대안보다는 확실한 대안을 추구할 것이고, 따라서 강한 위험회피성향을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흥형 스타일의 경우 위험중립형과 극단적 위험회피형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전체 표본의 위험성향과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 위험추구형에 속하는 1번 지점과 3번 지점의 빈도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위험회피형에 속하는 7번 지점도 높은 빈도를 보인다. 상대적으로 작은 표본크기를 고려했을 때 즉흥형 스타일의 실험참가자들이 어느 위험성향에 집중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즉흥형 스타일을 가지는 사람들은 위험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즉흥형 스타일의 경우 의사결정상황에서 별다른 논리 없이 본능(instinct)에 의해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행태를 보이므로 의사결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즉흥형 스타일의 사람은 위험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의사결정스타일에 따라 위험성향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카이제곱검정 결과는 <표 18>과 같다. 분석을 위해 위험성향을 위험추구형(1~3), 위험중립형(4~6), 위험회피형(7~10)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검정 결과, 합리형 스타일, 직관형 스타일, 의존형 스타일, 회피형 스타일은 세 가지 위험성향의 빈도가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즉흥형 스타일은 세 가지 위험성향이 모두 비슷한 빈도를 보여 앞서 언급한 의사결정스타일에 따른 위험성향 분포에 대한 해석을 지지하고 있다.

##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일반의 사결정유형척도와 다중가격제시설계 방법을 이용하여 개인의 의사결정스타일 및 위험성향을 측정하고, 각각의 분포를 확인한 후 의사결정스타일과 위험성향과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파악하였다. 한국인 성인들의 위험성향을 측정한 결과, 위험회피형에 집중되는 기존의 외국 연구들과는 달리 위험성향의 분포가 위험중립형과 극단적 위험회피형에 집중되는 쌍봉형 분포를 나타냈다. 이는 지역적, 문화적으로 서구, 특히 미국의 개인들과는 상이한 위험성향을 가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의사결정스타일의 분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여준다. 성별에 따른 의사결정스타일의 차이점을 보면, 남성의 경우 합리형의 비중이 높았고 여성의 경우 의존형의 비중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대에 따른 의사결정스타일의 분포를 보면 20대와 30대에 비해 40대 이상의 실험참가자들이 직관형에 많이 분포되었으며, 직업유형에 따른 의사결정스타일의 분포는 전체 표본의 분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관형 스타일을 가지는 사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의사결정스타일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관관계분석 결과 합리형과 의존형, 직관형과 즉흥형은 서로 함께 나

<표 18> 의사결정스타일별 위험성향의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검정 결과

구 분	통계량	기각치( $\alpha = 5\%$ )	검정결과
합리형	29.64	5.99	세 가지 위험성향 빈도에 차이가 존재함
직관형	9.78		세 가지 위험성향 빈도에 차이가 존재함
의존형	14.00		세 가지 위험성향 빈도에 차이가 존재함
회피형	46.82		세 가지 위험성향 빈도에 차이가 존재함
즉흥형	1.92		세 가지 위험성향 빈도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

타날 가능성이 높은 스타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스타일과 위험성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합리형 스타일의 경우 위험중립형과 극단적 위험회피형에 높은 빈도를 보이는 쌍봉형 분포를 나타내어 전체 표본의 위험성향과 비슷하게 나타났고, 직관형 스타일은 위험중립적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다른 의사결정스타일에 비해 위험추구적 성향을 나타낼 가능성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형 스타일은 위험중립형을 중심으로 약한 위험회피형과 약한 위험추구형에 집중된 분포를 보인다. 가장 특징적인 위험성향을 보여주는 의사결정스타일은 회피형인데, 대부분이 극단적 또는 강한 위험회피형에 속했다. 즉흥형 스타일의 경우 위험추구형, 위험중립형, 위험회피형 모두에 골고루 분포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분포는 의사결정 자체를 직감에 따라 즉흥적으로 내리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즉흥형 스타일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일관성이 없어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인지능력, 결정장애, 감성지능, 자존감 등 개인의 다양한 정신적 능력과 의사결정스타일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서구와는 달리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의사결정스타일에 대한 실증연구를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의사결정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개인적 특성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연구는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큰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위험성향에 대한 연구는 그 역사가 길며 여러 이론들을 탄생시켰지만 이러한 연구들의 성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기업 현장에서의 현실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사들은 투자자들의 위험성향을 측정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지만 민재형과 구기동[5]이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국 금융사의 사례나 방법론을 그대로 사용하는 타성과 그로 인한 오류가 여전하다. 또한 국내의 위험성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투자자 스스로

자신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기입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한 측정보다는 의사결정이론에 기반한 객관적 측정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의사결정이론에 근거한 다중가격제시설계 방법을 개인의 위험성향 측정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따른 의사결정스타일과 위험성향 각각의 분포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시장의 글로벌화가 기업 경영의 세계적 표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역화, 현지화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국가별, 문화권별, 개인의 특성별 의사결정스타일의 분포를 파악하는 연구는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의사결정스타일에 따라 위험성향이 차이를 보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위험성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여주는 개인의 행동양식에도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등 투자의사결정을 위해 실무에서 개인의 위험성향을 측정할 때 개인의 행태적인 특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관리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의 소득수준과 같은 통제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표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등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외국의 연구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유사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이것 또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하지만 본 탐색적 연구의 결과는 향후 보다 세심하게 설계된 분석적 연구에서 구체적 가설의 설정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의 의사결정스타일과 위험성향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 본 연구의 결과가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주요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스타일과 위험성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어 조직의 행태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연구가 향후 개인의 의사결정스타일 및 행동양식에 대한 세분화된 연구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강태건, 조성구, “의사결정자의 성격유형과 위험 성향”, 『한국경영과학회지』, 제21권, 제2호(1996), pp.1-16.
- [2] 김은주, 김정일, 남승규, 노길광, “일반의사결정 유형척도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제12권, 제4호(2011), pp.751-770.
- [3] 남순현, “학습자의 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사회적 쟁점의 분석과정 연구”, 『한국국외대학교 석사 학위 청구논문』, 2009.
- [4] 민경실, 송인성, “국내 금융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 측정”, 『소비문화연구』, 제17권, 제1호(2014), pp.69-88.
- [5] 민재형, 구기동, “불확실성하에서의 개인의 투자 행태 및 투자결정요인”, 『서강경영논총』, 제15권, 제2호(2004), pp.111-132.
- [6] 송소원,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 자기효능감에 따른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 『학생생활 연구』, 제14권(2001), pp.1-22.
- [7] 이재환, “성격적 특성과 정보행태의 관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2009), pp.161-182.
- [8] 정재삼, 금혜진, “교육공학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논쟁 : 학문적 정체성, 간학문성, 소프트 및 하드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과학연구』, 제34권, 제2호(2003), pp.167-192.
- [9] 최현수, 김미곤, 오미애, 임완섭, 허선, 신재동, 정현상, 김근혜, 2013년 서울복지실태조사 기초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10] 한민희, 신상근, 안성아, “금융고객의 위험태도와 위험대응 구매행동”, 『경영학연구』, 제29권, 제3호(2000), pp.337-352.
- [11] 허경옥, 박귀영, “소비자의 위험감수도와 현상유지도가 재무정보탐색, 가계재무관리행동 및 경제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6권, 제1호(2013), pp.1-26.
- [12] Behling, O., W. Gifford, and J. Tolliver, “Effects of Grouping Information on Decision-making under Risk,” *Decision Sciences*, Vol.11, No.2(1980), pp.272-283.
- [13] Bruce, R., *The Career Transition Cycle :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Career Events*, San Diego : Navy Personnel Research & Development Center, 1991.
- [14] Conteh, N., “The hypothesis testing of decision making style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Journal of Technology Research*, Vol.1(2009), pp.1-17.
- [15] Di Fabio, A. and L. Palazzeschi, “Emotional Intelligence : New Perspectives in Career Decision Making,” *Risorsa UoMo*, Vol.14, No.4(2008), pp.459-471.
- [16] Di Fabio, A. and M. Kenny, “The Contribution of Emotional Intelligence to Decisional Styles Among Itali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20, No.4(2012), pp.404-414.
- [17] Driver, M., K. Brousseau, and P. Hunsaker, *The Dynamic Decisionmaker*, New York : Harper & Row., 1990.
- [18] Goeree, J., C. Holt, and T. Palfrey, “Risk Averse Behavior in Generalized Matching Pennies Games,” *Game and Economic Behavior*, Vol.45, No.1(2003), pp.97-113.
- [19] Eidles-Maoz, M., “Personality and Decision Making Styles : The Effect of Hardiness and Spontaneity,” *Dissertation Thesis of Roosevelt University*, 2006.
- [20] Fornell, C. and D. Larcker,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8, No.1(1981), pp.39-50.
- [21] Hair, J., W. Black, B. Babin, and R. Anderson, *Multivariate data analysis : A global per-*

- spective, Basim : Pearson Education Inc., 2010.
- [22] Hana, S. and P. Chen, "Subjective and Objective Risk Tolerance : Implications for Optimal Portfolio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Vol.8, No.2(1997), pp.18-26.
- [23] Harren, V.,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4, No.2(1979), pp.119-133.
- [24] Harrison, G., E. Johnson, M. McInnes, and E. Rutström, "Risk Aversion and Incentive Effects :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95, No.3(2005), pp.900-904.
- [25] Harrison, G., J. List, and C. Towe, "Naturally occurring preferences and exogenous laboratory experiments : A case study of risk aversion," *Econometrica*, Vol.75, No.2(2007), pp.433-458.
- [26] Hickman, K., H. Hunter, J. Byrd, J. Beck, and W. Terpening, "Life Cycle Investing, Holding Periods, and Risk," *Journal of Portfolio Management*, Vol.27, No.2(2001), pp.101-111.
- [27] Holt, C. and S. Laury, "Risk Aversion and Incentive Effect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92, No.5(2002), pp.1644-1655.
- [28] Holt, C. and S. Laury, "Risk Aversion and Incentive Effects : New Data without Order Effect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95, No.3(2005), pp.902-904.
- [29] Kahneman, D. and A. Tversky, "Prospect Theory : An Analysis of Decisions Under Risk," *Econometrica*, Vol.47, No.2(1979), pp.263-291.
- [30] MacCrimmon, K. and D. Wehrung, "The Risk In-Basket," *Journal of Business*, Vol.57, No.3(1984), pp.367-387.
- [31] Malkiel, B., *A Random Walk Down Wall Street*, New York : W.W. Norton and Co., 1996.
- [32] Mckenny, J. and P. Keen, "How Managers' Mind Work," *Harvard Business Review*, Vol.52, No.3(1974), pp.79-90.
- [33] Mitchell, L. and R. Flin, "Shooting decisions by police firearms officers," *Journal of Cognitive Engineering and Decision Making*, Vol.1, No.4(2007), pp.375-390.
- [34] Mitroff, I., *Stakeholders of the Organizational Mind*, San Francisco : Jossey-Bass, 1983.
- [35] Noussair, C. and P. Wu, "Risk Tolerance in the present and the future : An experimental study," *Managerial and Decision Economics*, Vol.27(2006), pp.401-412.
- [36] Nunnally, J., *Psychometric Methods*, New York : McGraw-Hill, 1978.
- [37] Nunnally, J. and I. Bernstein, *The Assessment of Reliability*, New York : McGraw-Hill, 1994.
- [38] Parker A., W. Bruin, and B. Fischhoff, "Maximizers versus Satisficer : Decision-making Styles, Competence, and Outcomes,"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Vol.2, No.6(2007), pp.342-350.
- [39] Phillips, S., N. Paziienza, and H. Ferrin, "Decision-making styles and problem-solving appraisa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1, No.4(1984), pp.497-502.
- [40] Pratt, J., "Risk Aversion in the Small and in the Large," *Econometrica*, Vol.52, No.1/2(1964), pp.122-136.
- [41] Scott, S. and R. Bruce, "Decision-making style : The development and assessment of a new measur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55, No.5(1995), pp.818-831.